

녹색화학포럼 10월28일 창립행사

화학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미래의 녹색화학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녹색화학포럼이 창립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0월28일 16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지경부, 화학산업계, 화학분야 R&D 및 관련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녹색화학포럼 창립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녹색화학포럼은 김기현 의원과 허원준 화학산업연합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화학산업계, 화학분야 R&D 기관 및 학회, 지경부, 울산광역시 및 관련 지자체 등 19개 기관 대표가 정책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화학분야 R&D와 산·학협력의 주요 창구인 한국화학연구원이 사무국을 맡는다.

녹색화학포럼은 ▲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정밀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바이오화학 신규산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이슈 토론과 정책 대안을 통해 화학산업을 신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현 의원은 “국내 화학산업은 해외 기술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녹색화학포럼은 기존 석유화학은 물론 바이오화학, 정밀화학까지 고부가가치 녹색화학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학산업의 시발점이었던 울산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화학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화학포럼 창립 행사 후에는 제1회 화학산업의 날 행사가 열려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끌며 세계 6위의 화학강국으로 발전시킨 화학산업을 기념하고 녹색 화학강국으로의 재도약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갖는다.

<화학저널 2009/10/28>